

트럼프2.0 시대 정책에 따른 철강 산업 이슈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유 상 민 (sangminryu@kdb.co.kr)

- ◆ 트럼프 정부는 자국 산업 부흥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, 3월 12일자로 모든 철강 수입품에 대하여 25%의 관세를 일괄 부과
- ◆ 對미 철강 수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, 쿼터제 폐지, 자원 개발 기조, 현지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보존 가능성 등 제품별로 기회도 공존할 것으로 예상

□ 트럼프 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% 관세 일괄 부과 (25.3.12)

- 트럼프 정부 1기 집권 당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수입 철강 제품에 25%의 관세를 부과 및 일부 국가별 협상을 통해 다소 다르게 적용
 - 캐나다, 멕시코는 관세 면제를 받았으며,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쿼터제를 적용받아 수출량 제한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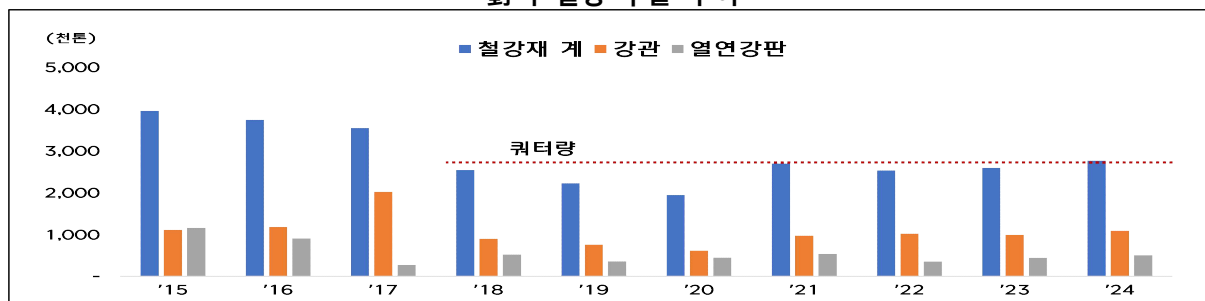
* '15년~'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70%인 263만톤 까지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한

- 트럼프 정부 2기 일괄 관세 부과는 그간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철강 제품 수입 관세 정책을 일괄적으로 25%로 통일

□ 한국의 철강 수출 중 美 비중은 12% 수준이며, 이번 관세 부과로 쿼터제 폐지

- '24년 한국의 對미 철강 수출액은 약 35억달러로 전체 철강 수출액(약 285억 달러)의 12% 수준
 - 미국은 한국의 수출량 4위 국가로, 주요 품목은 강관(39%), 열연강판(18%) 등
- 그간 對미 수출 시 품목별 쿼터가 적용되어 있어 철강 수출량 상승은 제한적이었으나, 이번 일괄 관세 부과로 쿼터제가 폐지되어 수출량 확대 가능

對미 철강 수출 추이



자료 : 한국철강협회

□ 관세 부과는 수출에 부정적이나 쿼터제 폐지, 현지 업체의 철강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유효한 가격 경쟁력 등 기회도 함께 공존

- 관세 부과 영향으로 3월 對미 철강 수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 감소 예상되며, 최근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부과 등으로 철강 전방산업 수요 위축 가능성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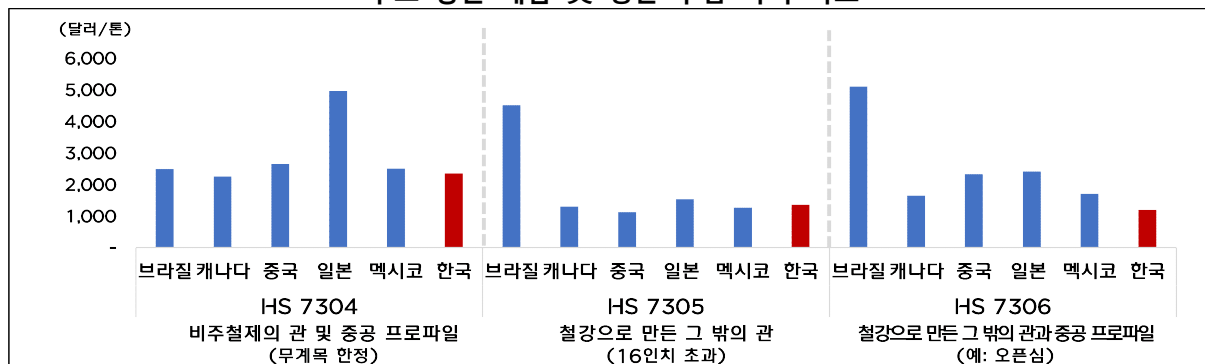
- 對미 철강 수출 '24.3월 278천톤에서 '25.3월 240천톤으로 13.7% 감소

- 다만, 쿼터제 폐지 시 수출량 제한이 풀려 경쟁 수출국 대비 가격·품질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은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 상쇄 가능

- 국산 강관 제품은 주요 對미 수출국인 캐나다, 멕시코 대비 가격 경쟁력 보유*

* 강관 제품 중 미국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HS7306 제품 기준 캐나다, 멕시코 대비 약 30% 낮은 가격대 형성 중

주요 강관 제품 美 평균 수입 가격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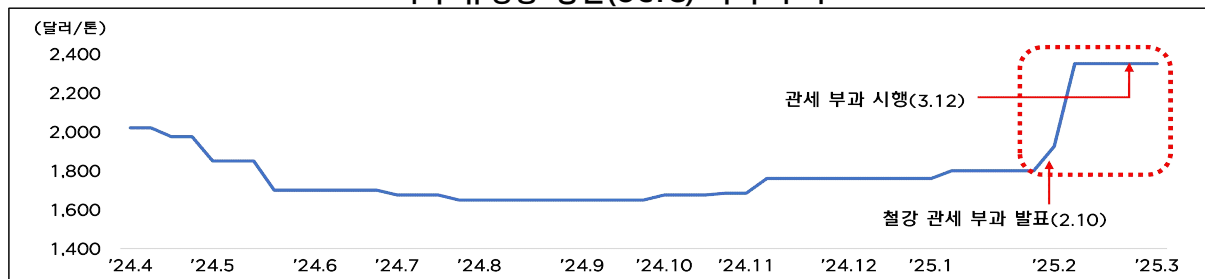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UN Comtrade

- 관세 부과 발표 이후 美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여* 가격 경쟁 지속 가능

*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유정용 강관(OCTG)의 경우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현지 가격 31% 상승

미국 유정용 강관(OCTG) 가격 추이



자료 : 업계자료

- 다만, 개별 국가간 지속적인 협상 등으로 철강 제품 관련 국가별 적용되는 관세는 변동 가능